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아버지의 집 성경: 누가복음 2장 41-50절

Tag:

41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42 예수께서 열두 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43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44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45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46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47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48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49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50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눅2:41-50)

아버지의 집

예수님은 12세 되던 유월절에 일가친척을 따라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12세는 초기 청소년기. 인지발달 단계로는 형식적 조작기로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한 단계.)

모든 일정을 마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하루쯤 지나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가 일행 중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되짚어 찾으며 올라가게 되었다. 그러다 마침내 성전에서 예수를 발견하게 된다. 예수는 성전에서 성경학자들과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의 지혜와 이해력과 대답하는 능력에 놀라고 있었다. (신동)

마리아는 예수에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고 책망하였다. 그녀는 예수가 자신에게 큰 근심을 끼쳤다는 것을 토로 하였다. 마리아의 이런 반응은 모든 엄마들의 공통적인 반응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의 반응에 대해서 의아해 하였다. 아니, 어머니께서는 마땅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나요?

그러나 예수의 부모들은 그 말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잘 보살펴야 한다는 단순한 사명감에 충실할 뿐이었다. 하는 수 없이 예수는 부모를 따라 갈릴리 나사렛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

왜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 그러했을까?
예수님의 아버지의 집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굳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장소에 대해서 그리웠을까?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성전 그 자체를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다니...

또 성전에는 구약성경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항상 모여 있었기 때문이다. 성경 말씀에 대한 그리움,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열망이 예수님을 성전에 붙들어 댔다.

성경말씀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이해에 대한 궁금증이 컸을 것이다.

특히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 그 말씀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해석에 관해서 깊이있는 대화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런 대화들은 훗날 아리마대 요셉이나(공회원;국회의원격), 니고데모(바리새인),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 여러 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신학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유월절 기간이 8일간이었기에 충분할 정도는 아니었을지라도 부모님을 따라 나사렛으로 가게 되어 아쉽게도 성경말씀에 대한 토론을 마치게 되었다.

성경에는 더 이상 다른 언급은 없지만, 그 후에라도 매년 유월절이나 오순절, 초막절에는 성전에서 비슷한 토론이 계속되었을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이 된 이후에는 더 이상 부모님들의 간섭이 사라졌을 것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더 오래 머물게 되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을 것이다.

회막으로서의 성전

구약성경에서의 성전은 모세의 회막에서부터 출발하는데, 회막의 기능 중 핵심적인 기능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기능이다.

두 번째 기능은 회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죄를 사하는 속죄제를 드리는 기능이다. 누구든 성전에 들어갈 때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어야 한다.

광야에서 이 회막은 옮겨 다닐 수 있었다. 회막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회막을 둘러쌌다.

회막에는 제사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그 속에는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향아리가 들어 있었다.

언약궤;계약서가 들어 있었다.

십계명 ; 계약서의 내용이다.

썩난 지팡이는 영도력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가 담겨있고
만나 향아리는 매일의 양식이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주어진다는 의
미가 담겨있다.

아버지의 집은 우리 영혼의 고향, 안식처, 나의 본향을 상징하고 있다
는 믿음.

17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어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창28:17)

이땅의 성전은 하늘의 문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아버지의 집

4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와 그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
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27:4)

-다윗의 고백. 그는 제사장이 아니었기에 그곳에 거주할 수 없는 신
분.

-그러나 그는 차라리 문지기라도 되기를 소망하였다.

-다윗은 나중에 빼앗긴 법궤를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장막을 짓고 법궤를 안치하였다.

-옛적 사무엘은 기브온 산당(예루살렘 북서쪽 8Km지경)에서 미스바
집회를 하였는데, 그곳으로 회막을 옮기고 제사드리는 일을 하였다.

(아마도 법궤를 빼앗기고, 기브온 족속들이 성막을 위해 일하는 자들
이어서 성막을 자신들의 거처로 옮겼고, 후일 사무엘이 그곳에서 성회
를 소집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생활 이후에는 회당이 아버지의 집으로서의 역할
을 주로 감당하게 되었다. 회당은 마을마다 있는 예배 처소로서 안식일
에 모여 예배하는 곳이었다.

시간적 절기로서의 아버지의 집

15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빔월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 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출23:15)

16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출23:16)

시간적 절기로서 아버지의 집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과 맺는 개인적 약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성전
-나의 신앙고백이 시공간 속에 자리를 잡는 곳이 성전이다.

아버지의 집에 관한 특정 포인트와 특별 포인트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